

유아교사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연구 : 교사자격 및 교사양성체계

강영식*, 오경숙**, 김보영*, 성진영*, 장한솔*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국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 Teacher Qualification and Teacher Training System

Young-Sik Kang*, Kyeong-Sook Oh**,

Bo-Young Kim*, Han-Sol Jang*, Jin-Young S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자격 및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D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80명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관의 형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집 교사는 유보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둘째, 유아교사 자격에 대해서 세분화된 자격체계가 필요하나 자격기준에 대해선 기관의 형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셋째, 교사양성체계에 대해서 관련학과 중심체를 통한 양성을 바라고 있으나 바람직한 교사양성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형태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기준과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유보통합, 교사자격, 교사양성체계, 유아교사

1. 서론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30일 데일리안 보도자료[1]에 의하면 정부는 1월 31일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통합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서는 교사 통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해 자격 요건이 다르다. 월평균 급여 수준도 달라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역대 정부는 1997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부처 및 유아교육기관과 교사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건이 달라 30년 가까이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계는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에 따라, 어린이집교사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에 따라 양성되고 그에 따른 교사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각기 다른 법에 따라서 교사가 양성되고 교사자격, 양성기관과 방식, 수업연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 등에 차이를 보여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의 정책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2].

유보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보통합 시 자격 구분에 대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모두 정교사와 보조교사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교사 자격과 직위 체계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 모두 현행보다 세분화된 직위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양성체계를 상향 조정하고 통합교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4].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보통합방안에 실제로 몸을 담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유보통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아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에 대한 연구부족의 한계점에 기초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관형태에 따른 유보통합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기관형태에 따른 유보통합 시 갖추어야 할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기관형태에 따른 유아교사가 긍정적으로 바라는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80명이며 연구대상의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n	%
기관형태	유치원	42.5
	어린이집	57.5
	전체	100.0
기관규모	5~20인	11.3
	21~50인	18.8
	51~99인	35.0
	100인 이상	35.0
	전체	100.0

2.2. 연구도구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 및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예린[2]이 유아교육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6문항,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4문항,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인식 6문항, 유보통합 시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인식 4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23년 3월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80부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유보통합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기관 형태에 따른 유아교사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차이

3.1.1.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표 2]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구분	기관형태				전체		χ^2
	유치원		어린이집		n	%	
	n	%	n	%	n	%	
매우 필요하다	2	5.9	9	19.6	11	13.8	18.39 ***
필요하다	13	38.2	29	63.0	42	52.5	
보통이다	0	0.0	0	0.0	0	0.0	
필요하지 않다	10	29.4	8	17.4	18	22.5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26.5	0	0.0	9	11.3	
전체	34	100.0	46	100.0	80	100.0	

‘유보통합의 필요성 인식’ 질문에 대해 [표 2]와 같이 유아교사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2.5%, ‘필요하지 않다’가 22.5%, ‘매우필요하다’ 1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필요하다’ 38.2%, ‘필요하지 않다’ 29.4%와 ‘매우 필요하지 않다’가 26.5%로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19.6%, ‘필요하다’가 63.0%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8.39$, $p<.001$). 즉,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유보통합의 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5.4%,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3.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관의 형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1.3. 유보통합의 시기에 대한 인식

유보통합의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2~3년 정도의 준비기간’ 32.9%, ‘준비기간 관계없이 바른 방향’ 22.9%, ‘빠를수록 좋다’ 21.4%, ‘5년 이상의 준비기간’ 17.1%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교사는 ‘빠를수록 좋다’ 29.5%, ‘2~3년 정도의 준비기간’ 3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는 ‘5년 이상의 준비기간’ 34.6%, ‘2~3년 정도의 준비기간’ 26.9%로 나타나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2.00, p<.05$).

3.1.4. 유보통합이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유보통합이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기관의 목적과 양성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36.1%, ‘통합되면 어느 한쪽의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21.3%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는 유치원 교사는 ‘기관의 목적과 교원양성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5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통합이 되면 어느 한쪽의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가 35.3%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1.87, p<.05$).

3.2. 유아교사의 유보통합 시 갖추어야 할 교사 자격 기준 차이

3.2.1.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인식

[표 3]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인식

구분	기관형태				전체		χ^2
	유치원		어린이집		n	%	
	n	%	n	%			
현행유치원교사 자격증	27	79.4	9	19.6	36	45.0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	0	0.0	2	4.3	2	2.5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육 또는 교육에 따라 혼용	4	11.8	20	43.5	24	30.0	28.51 ***
새로운 형태의 통합자격증	3	8.8	15	32.6	18	22.5	
전체	34	100.0	46	100.0	80	100.0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인식질문에 대해 [표 3]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현행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45.0%.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육 또는 교육에 따라 혼용’ 30.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는 유치원 교사는 ‘현행 유치원교사 자격증’ 79.4%

가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육 또는 교육에 따라 혼용’이 43.5%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8.51, p<.001$).

3.2.2 유보통합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제도

유보통합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유아교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이 같아야 한다(46.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력에 따라 자격을 차등화 해야한다’ 32.4%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3. 유보통합 시 기존자격증에 대한 재검증

유보통합 시 기존자격증에 대한 재검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42.5%와 ‘매우 필요하다’ 37.5%는 응답이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2.4. 유보통합 시 기존자격증 전환에 대한 인식

유보통합 시 기존자격증 전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학력, 경력, 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등부여’ 36.3%, ‘자격 소지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 2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2.5. 유보통합 시 통합교사의 자격체계에 대한 인식

유보통합 시 통합교사의 자격체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3급 정교사-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 또는 주임-원감-원장’이 36.0%,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 또는 주임-원감-원장’ 3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 유보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자격의 방향

유보통합 시 현행 보육교사 3급“자격의 방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급 교사는 보조교사 업무를 하며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연수와 교육을 통해 승급 후 담임교사로 전환’ 40.0%,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교사로 전환(경력에 따라 2급 자격 취득 가능)’ 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유아교사가 긍정적으로 바라는 교사양성체계

유보통합 시 바람직한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유아교사들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 학과’가 33.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유아교육학과’ 32.5%,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 학과가 22.5%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58.8%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한 것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39.1%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 학과’를 선택해 기관 형태에 따른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20.19, p<.001$).

[표 4] 유보통합 시 바람직한 교사양성기관

구분	기관형태				전체		X ²
	유치원		어린이집		n	%	
	n	%	n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유아교육학과	20	58.8	6	13.0	26	32.5	20.19***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아동관련 학과	0	0	1	2.2	1	1.3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 학과	3	8.8	15	32.6	18	22.5	
3년제 전문대학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 학과	9	26.5	18	39.1	27	33.8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모든 양성기관	2	5.9	6	13.0	8	10.0	
전체	34	100.0	46	100.0	80	100.0	

4. 결론 및 제언

각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유치원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높게 인식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필요하다고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를 보였다. 통합시기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는 ‘2~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기관 형태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유보통합 시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 현재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이 적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의 자격이 같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존자격증에 대해 학력, 경력, 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제검증이 필요하며, ‘3급 정교사-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 또는 주임-원감-원장’의 세분화된 교사자격체계가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다. 현행 ‘보육교사 3급’ 자격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업무를 하며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연수와 교육을 통해 승급 후 담임교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유보통합 시 바람직한 교사양성방식에 대해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유아교육과’(58.8%)를, 어린이집교사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 학과’(39.1%)를 선호해 기관의 형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엔 제한점이 있으니 전국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기준 및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사의 인식을 설문 조사한 연구이므로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으니 후속연구에선 교사처우개선, 교육과정, 실습 등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테일리안 보도자료(2023.1.30.) “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 2025년부터 유보통합 시행.” <https://m.dailian.co.kr/news/view/1197063>에서 2023..4.2일 인출
- [2]김예린. “유보통합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운영자의 인식 조사 연구: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년
- [3]윤인숙.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인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년.
- [4]김현정. “우리나라 유보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년.